

# kiri Weekly

2014.1.6 제266호

## 이슈

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

## 글로벌 이슈

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 우려

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과 시사점

## 금융시장 주요지표

**kiri** 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8층 보험연구원 (문의 : 김세환 부장 / 02-3775-9051)



#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

김석영 연구위원, 김해식 연구위원, 조재린 연구위원

## 요약

-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계획(RBC2)은 싱가포르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험회사에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여 금융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, 이는 우리나라 RBC 제도 개편작업과 유사함.
  - 싱가포르는 2013년 IMF로부터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등 RBC제도 개편 계획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.
  - 일본은 2011년,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2012년 IMF FSAP 평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-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과정은 금융감독당국이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.
  -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.
  - 한편, 싱가포르는 정책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"RBC2"의 정책 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RBC 산출 관련 신뢰수준과 리스크상관관계는 물론 내부모형, 리스크마진 등 RBC 전반에 관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보험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임.
-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개적인 논의는 지급여력제도를 자국 보험시장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.
  -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쟁점을 둘러싼 보험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함.
  - 이에 보험계리사회, 보험협회 등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RBC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.
  -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, 새로운 RBC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
## 1. 검토 배경



-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2년 10월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위험기준자본금(RBC: Risk-based Capital, 이하 지급여력제도)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, 싱가포르에서도 현행 RBC제도를 개편하는 로드맵(RBC2)이 2012년 6월에 공표됨.<sup>1)</sup>
  -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(MAS: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)은 새로운 RBC제도(RBC2)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인.
  - 한편, MAS는 RBC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RBC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"RBC2 Review"를 보험시장에 공표하고, 싱가포르 보험계리사회, 보험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.
  
- 싱가포르의 RBC2는 2013년 국제통화기금(IMF)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(FSAP: Financial System Assessment Program) 적용에 대비해 EU Solvency II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 보험산업 상황과 유사함.
  - 아시아 주요 보험시장을 보면, 일본이 2012년에,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2013년에 FSAP 평가를 받았으며, 각국은 평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함.
  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는 금융안정위원회(FSB: Financial Stability Board)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한편, IMF FSAP 평가를 통해 각국 금융부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.
  - 특히,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금융허브로서 국제화된 보험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.
  
- 본고는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 간의 RBC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,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1) Review on Risk-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("RBC2 Review").

## 2. 싱가포르 RBC제도 현황과 개편 계획



### ■ 싱가포르는 RBC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임.

- 싱가포르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(Risk-Focused Approach)을 채택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함.
  - RBC비율(Capital Adequacy Ratio)은 요구자본(Total Risk Requirement)에 대한 가용자본(Financial Resources)의 비율로 산출됨.
  -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은 조기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.
- 이는 2011년에 도입된 국내 보험회사의 RBC체제와 유사한 형태임.

### ■ 싱가포르의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보험리스크, 투자리스크, 집중리스크 등으로 나누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며, RBC제도로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성적 감독으로 규제

- 싱가포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보험, 투자, 집중리스크에 대해 산출
  - 보험리스크(C1)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리스크, 생명보험은 사망률, 질병률, 사업비, 해약율에 대한 리스크임.
  - 투자리스크(C2)는 보험회사 자산구성에 내재된 시장리스크, 신용리스크로서 주식, 부동산, 환율 등 시장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말함.
  - 집중리스크(C3)는 특정 자산 종류 혹은 특정 거래상대자에 자산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로 감독규정(Insurance Regulation 2004)에 명시된 집중한도 초과 부분에 기초해서 산출됨.
- 현행 RBC제도에서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정성적 감독을 통해 다루고 있으며, MAS는 보험법에 근거해서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명령할 수 있음.

### ■ 한편, MAS는 현행 RBC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감독체계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, 그 이면에는 싱가포르의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가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음.

- MAS는 2011년 IAIS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)가 제시한 개정 국

제보험감독원칙(Insurance Core Principles)을 반영해서 RBC2를 발표함.

- MAS는 RBC2의 목적을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개입 수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험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위험민감도를 높이는 것임을 명시함.
- 또한 MAS는 현재의 위험중심접근법(risk-focused approach)을 계속 유지할 것이므로 RBC2가 현행 보험감독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.
- MAS는 RBC제도 개편에 앞서 지급여력평가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제도 개편 방향과 2014년 시행 일정을 담은 "RBC2 Review"를 먼저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의견을 수렴함.
  - RBC2의 주요 현안은 신뢰수준, 감독조치수준, 리스크 산출방법, 내부모형 등으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들임.
  - 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개편 방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, 모호한 내용이나 결론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.

### 3. 싱가포르 RBC제도 개편(RBC2) 관련 논의



- MAS는 감독조치수준의 구분, 요구자본 산출 시 99.5%의 신뢰수준 적용과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, 내부모형 도입, 6%의 요구자본비용을 적용한 리스크마진 산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BC2 Review를 공표함.
  - MAS는 RBC2에서 현행 감독조치수준(RBC비율 100%, 이하 PCR: 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) 이외에 최소요구자본(MCR: Minimum Capital Requirement)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제안함.
    - IAIS는 자본적정성에 대하여 두 단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,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두 단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함.
    - PCR은 1년 동안 신뢰구간 99.5%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 보험회사는 3개월 이내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경기상황에 따라 감독당국은 유연하게 이 기간을 운영할 것임을 제시함.
    - 한편 MCR은 1년 동안 신뢰구간 90%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것으로, 위반 시 신계약 판매 중지, 영업권 철회 등이 취해지는 감독조치수준임.
  - MAS는 요구자본 산출 시 상향된 신뢰수준(99.5%)과 평가기간 1년 기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는

한편, 리스크 상관관계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.

- 이는 EU Solvency II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뢰수준 99.5%가 RBC2에 반영된 것임.
- MAS는 싱가포르 보험시장에서 평상 시 및 위기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리스크 상관관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.

-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일부 리스크에 또는 모든 리스크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임.
  -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신뢰수준 및 평가기간은 표준모형과 일치하여야 하며, MAS의 승인 필요
  - MAS는 표준모형에 반하는 내부모형의 가정 및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임.
- 한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계산에는 자본비용(Cost of Capital) 6%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
  - EU Solvency II와 Swiss Solvency Test의 리스크마진 산출방식은 요구자본의 자본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비용 6%를 제시하고 있음.

■ 이에 싱가포르 보험계리사회(Singapore Actuarial Society) 등은 싱가포르 보험시장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문제없이 견뎌냄으로써 현행 RBC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 보험시장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- 특히, 싱가포르 계리사회는 회원들의 소속회사나 보험회사의 의견이 아닌 회원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음을 명시하면서 적극적으로 RBC2 수정의견을 개진함.
- RBC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뢰수준 상향(99.5%)과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에 대해 신뢰수준 상향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,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함.
  - EU Solvency II의 계량영향평가(QIS5)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리스크 상관관계 허용으로 35%나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리스크 상관관계 불허와 신뢰수준 상향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상승 혹은 보험상품의 보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함.
- 또한,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인가 절차가 불분명하고, 내부모형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에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전사적위험관리(ERM)와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및 지급역력평가와 보고제도(ORSA)<sup>2)</sup>가 도입된 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한편, 리스크마진 산출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들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므로 자본비용방식을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  - 특히 6%의 자본비용 수준은 EU Solvency II 등에서 채택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보험시장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2) MAS(2013), "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Insurers", Consultation Paper P002-2013.

- 따라서, 싱가포르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편(RBC2)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때, MAS가 제시한 2014년 시행이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음.
- 싱가포르 시장 내에서는 국제적인 논의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하며 RBC2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에는 2012년 6월에 제시된 MAS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 RBC2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
## 4. 시사점



-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은 싱가포르 지급여력제도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RBC제도 개편작업과 유사함.
  - 싱가포르가 RBC2를 통해서 2013년 IMF FSAP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는 등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에는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.<sup>3)</sup>
  - 일본은 2011년,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2012년에 IMF FSAP 평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하거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- 한편, 싱가포르의 RBC제도의 개편 과정을 살펴볼 때,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RBC 개편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큼.
  -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유지<sup>4)</sup>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.
  - 싱가포르의 RBC제도 개편 논의는 국내 RBC제도 개편 논의와 비교하여 신뢰수준과 리스크상관관계는 물론 내부모형, 리스크마진 등 폭 넓은 쟁점사항을 보다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음.
    - 싱가포르는 정책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BC제도의 개편 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보험시장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

3) IMF(2013), "Singapore Financial System Assessment", IMF Country Report No.13/325.

4) 최근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, 싱가포르는 향후 2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PwC(2013), "Global Private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Survey 2013".

밝고 있음.

- 이에 보험계리사회, 보험협회 등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RBC제도의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. **kiri**